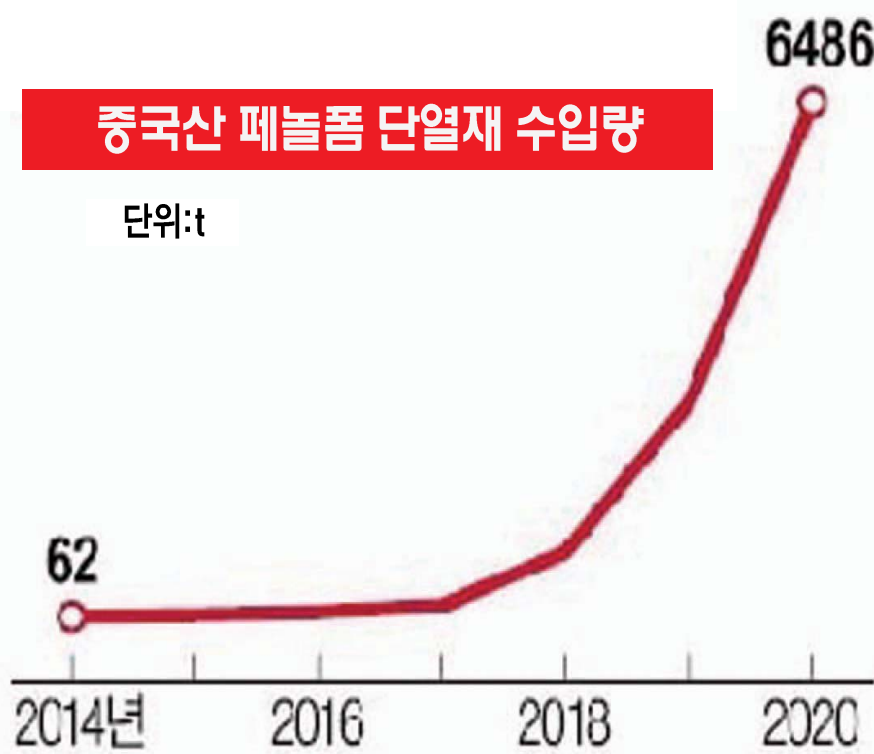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한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KS인증 취소

국내 유통 페놀폼 단열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통해 부적격 제품 퇴출 필요성 제기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단열재 업체인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한 페놀폼 단열재로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폼 단열재(범주 I-A) 제품에 부여했던 ‘KS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제품군 품질 표준’ 인증이다.

해당 회사의 제품은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국내에 대거 수입되어 유통 중이다.

이번에 취소된 제품은 벽과 공간 단열 등에 사용되는 ‘범주 I-A’로 ‘범주 II-A’에 이어 사실상 이 업체가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KS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4월 조립 지붕 등에 사용되는 ‘범주 II-A’ 제품의 KS 인증은 이미 취소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일품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I-A)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할 경우 취해진다.

정해진 시점(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페놀폼은 정부의 준불연 단열재 확대 조치에 따라 기존의 시장 우위 상품이던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시장을 잠식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가격이 싸면서 저질인 중국 제품도 급속히 시장에 파고 들고 있어 국내 페놀폼 단열재 시장의 20% 정도를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나타난 단열성능의 문제 뿐만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이상 방출로 시장 퇴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여기에 페놀폼의 시장 확대 사유가 유기단열재 가운데 비교적 불에 강하다는 논리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페놀폼 제품의 준불연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KS 인증 취소 건을 계기로 중국산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페놀폼 단열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제품의 퇴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범 기자 kienews@naver.com

제9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세미나

준불연 단열재 및 단열재 연구 이슈 등 소개와 유·무기 단열업체 대응 방안 등 안내

화학경제연구원 주최 3월 18일 개최

화학경제연구원이 3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9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화재안전 및 제로에너지 건축의 정부 정책 강화 방안, 준불연 및 불연 단열재의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 기관 및 업체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BASF, KPX케미칼,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도지주택공사(LH) 등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관련 정부 정책을 발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축용 단열재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 및 준불연 단열재 이슈 및 단열재

연구 이슈 등을 소개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동향과 향후 유·무기 단열업체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BASF는 준불연 EPS 시장에 대한 점검, KPX케미칼은 준불연 폴리우레탄 단열재의 개발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에서는 슈퍼 단열재료 불리는 에어로겔 단열재의 연구 동향 및 산업 응용 사례를 발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질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현황을, 한국도지주택공사는 LH 단열설계 기준 동향 및 저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단열재 복합 성능 기준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범 기자 kienews@naver.com

환경 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시험 환경측정 분석 결과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 인정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분야 국가표준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시험한 환경측정 분석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간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에서 1년 동안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대기환경 분야 6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9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8종, 생활소음 분야 16종, 유량 분야 11종, 제품환경성 분야 11종, 실내공

기질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5종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중이 제품 내 비스페놀 에이(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료채취 준비 단계부터 포장, 운송, 보관 및 보존 등 토양분야 63종의 표준 중 14종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화돼 환경 시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국가표준 67종에 대해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 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에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Global Gas & Power Company **SK E&S**,

대한민국의 생활에너지 서비스를 만듭니다

SK E&S는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전력, LNG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서비스 기업입니다

내일, 그 다음 에너지까지

코원에너지서비스 | 부산도시가스 | 영남에너지서비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강원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

LNG 사업 | 전력 사업 | 집단에너지 사업 | 도시가스 사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 | Global 사업